제 7 장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

1. 헤겔은 정신과 현실로 이 세계를 모두 설명한다.

1) 헤겔은 스피노자가 말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의 관계를 정신과 현실로 이해한다.

◇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라는 의미도 바로 이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나무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무의 생각은 바로 나무를 나무로 존재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자신의 생각을 반성할 수는 없다. 반면 나무와는 달리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반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 나무도 인간도 모두 절대정신이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정신은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무나 인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정신을 이성의 간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2) 헤겔의 변증법은 인간의 자기 이해의 메커니즘을 추상화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 '즉자→대자→즉자·대자'가 변증법의 기본 공식이다. 반성하지 않은 <활동=생각>의 상태가 즉자이고, 자신의 활동을 반성하는 것이 대자이며, 반성하는 <활동=생각>이 바로 즉자·대자이다. 자신의 <활동=생각>을 반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전체의 지평에서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즉자·대자로 통일된 상태는 전체의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개체의 <활동=생각>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다.
◇ 변증법은 논리학적으로 A=-(-A)라 규정될 수 있겠다. A 는 -A 가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A 는 A 를 제외한 전체에 대한 규정이다.
→ 전체 세계가 A, B, C, D 로 구성된다면, A 는 B, C, D 의 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비록 부정적인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말이다. 헤겔에 따르면 B, C, D 는 -A 로 규정된다. 결국 B, C, D 를 한 번 더 부정했을 때, A 는 규정된다는 것이다.
→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의 차연(differance)은 A, B, C, D 로 규정된 전체 체계를 부정하면서 출현하는 논의이다. 다시 말해 A 는 무한히 많은 다른 것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끝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마르크스는 거꾸로 되어 있는 헤겔의 변증법을 바로잡는다.

1) 헤겔은 A 안에 BCD 의 규정이 미리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A 안에 들어 있는 BCD 의 규정은 A 가 BCD 와 마주친 뒤에 생긴 것이라고 규정한다.

◇ 어떤 것은 다른 것과 마주치고 교환이 되어야 상품이지, 애초부터 상품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물이 현재 상품으로 된 것은 물에 상품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이 미리 존재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2) 헤겔의 변증법이 일원론적이라면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기본적으로 다원론적이다.

◇ 마르크스에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복수적인 계기들이 존재한다. 차이 나는 두 계기가 마주쳤을 때 그 결과가 두 계기 각각에 흔적으로서 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산업자본주의 이전에도 상업자본의 형태로 자본의 운동은 존재했었다.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상인을 긍정하는 권력을 만났을 때, 상업자본은 산업자본으로 변모하게 된다.